

탄핵 정국... '전남권 통합의대 설립' 악영향 우려

여·의·정 협의체 파행·'전공의 처단' 계엄령 악재 맞물려 "의대 신설 행정 절차 예정대로 추진... '정부의 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목포대·순천대 통합대학 국립의과대학 신설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도 정상 추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9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는 지난달 15일 대학 통합의과대학 신설 계획에 대해 협의하고 통합대학 국립의대 신설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달 22일 정부에 전남권 의대 설립 방식으로 '통합의대' 추천서를 제출했다. 양 대학은 지난달 28일 통

합의대 명의로 한국교육개발원에 예비 평가인증을 신청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2026년 통합 의대를 개교할 계획이다. 의대 정원은 200명 규모다. 양 대학은 통합의대 추진과 함께 대학 통합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대학 통합 실무위원회는 매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교명 선정 방식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대학 통합 신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올해 안에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대학과 함께 탄핵 정국 등 시국 상황에 동요하지 않고 통합의대 신설을 위한 행정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전남도는 대학과 함께 내년 초 한국교육개발원의 예비 인증 현지 심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이처럼 전남도와 대학이 30여년 만에 얻어낸 전남권 국립 의대 설립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대통령 탄핵 등과 맞물려 향후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남 통합의대 신설 의제를 다뤄줄 것으로 기대했던 여·의·정 협의체가 이달 1일 무기한 중단된 데 이어, 계엄사령부 포고문에 '전공의 처단'이 명시돼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 요구 등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남도는 의료계, 국회, 정부에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알리는 등 정국 변화와 관계없이 두 대학과 협의해 전남권 국립의대가 신설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구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학 통합, 통합의대 신청서 제출 등 정부가 전남도에 요청한 것은 모두 마친 만큼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대학 통합 명분도 있는 만큼 정부에 의대 정원 배정을 지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5·18민주광장서 탄핵 촉구 9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김기정 광주시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구청장, 종교 지도자, 오월단체대표, 대학 총장, 시민단체 대표 등이 쌍둥이 포고령, 대통령 탄핵, 책임자 처벌 촉구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애리 기자

광주시·전남도, 민생 안정 행정력 집중

●비상계엄 관련 市·道 간부회의

姜시장 "시민 일상 지키는 데 최선" 당부
金지사 "도민 안전·경제 안정 주력" 강조

광주시와 전남도가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과 관련, 민생·경제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김기정 광주시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민생 경제와 시민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강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경제 회복실정도 커진 만큼 내년 추진 상황을 예

의주시해 민생 경제를 보살피고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강 시장은 "금융시장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지역 충격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사업 조기 집행 등 행정이 할 수 일들을 찾아 시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려울 때일수록 행정이 안

정되고 차질 없이 시정을 운영해야 한다"며 "각 실·국에서도 민생 현안을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강 시장은 "추운 날씨에 많은 시민들이 5·18민주광장에 모여 나라와 경제를 걱정하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과 보호는 행정의 제1의무다. 시민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집무실에서 실·국장 현안회의를 열어 "도민의 안전과 지역 경제 안정, 겨울철 휴한기 취약계층 돌봄 등 행정 본연의 일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비상계엄 때문에 내

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 저성장기에 예측되는 등 비상 상황"이라며 "여기에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 현상 심화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만큼 경기를 진작하고 서민경제가 잘 돌아가게끔 내년도 전남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예산을 조속히 집행토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그는 "정부 내년도 예산 감축 때문에 민생 추경 편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도 정부 민생 추경이 성립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미리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경기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은 더욱 힘들어진다"며 "이럴 때 일수록 민생안정 대책을 촘촘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전남 가구소득 8위... 첫 한 자릿수 순위

통계청 조사... 지난해 6천609만원 전년비 8% ↑

전남지역 가구 소득이 전국 17개 시도 중 8위에 오르며 처음으로 한 자릿수 순위에 진입했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남의 가구소득은 1년 전(6천938만원)보다 516만원(8.5%) 늘어난 6천609만원으로 전국 8위를 기록했다. 전남 가구소득이 한 자릿수 순위에 들어선 건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남 가구소득 증가율은 전국 평균 증가율(6.3%)보다 2.2%p 높았다. 취업자 증가로 근로소득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남지역 근로소득은 국고예산 증가에 따른 연산 산업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2만 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의 자산·부채·소득 등을 분석하는 조사통계다. 올해 3월 기준 전남의 가구당 평균자산은 전년 동월(3억3천801만원) 대비 2천655만원(8%) 늘어난 3억6천556만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자산(6.4%)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가구 부채는 5천471만원으로 전년 동월(5천146만원) 대비 325만원(6.3%) 늘었다.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대출 등 담보 대출이 일부 증가했으나 가구 부채 규모는 여전히 전국에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 평균 가구 부채는 9천128만원이다. 장현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남도민의 소득·자산이 늘어난 것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라며 "가구 부채는 줄고 자산과 소득은 늘도록 다양한 경제정책과 도민 행복시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전남개발공사, 여수 죽림1지구 학교용지 무상공급

전남개발공사가 여수 죽림1지구 초등학교 용지(가칭 우리초등학교)를 전남도교육청에 12일 무상 공급한다. 여수 죽림1지구는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일원 9만8천㎡, 계획구역 약 1만4천㎡ 규모로 조성되며 사업지구 내에 초등학교 1개소(2만7㎡), 중학교 1개소(1만5천38㎡)가 계획돼 있다. 신설될 초등학교는 2027년 개교 시 초등학교 19개 학급, 유치원 1개 학급으

로 시작해 향후 초등학교 31개, 유치원 3개 학급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장총무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도교육청, 여수교육지원청과 협력해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학교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개발공사는 죽림1지구 준주거시설 용지와 상업 용지를 공급하고 있다. /김재정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람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렸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광고국 ☎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주식액면분할에 따른
주권제출공고**

당 회사는 2024년 12월 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1주의 금액 금1,000원의 주식 1주를 분할하여 1주의 금액 금100원의 주식 10주로 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주식 분할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께서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 및 주주권을 당 회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0일
주식회사 주진기술
광주광역시 광산구 병동산단8번로 14-4(연산동)
대표자 사내이사 이문도

화정동757-34 힐스테이트1단지(763세대)정문앞
시교육청정문점 대로변 대지275㎡ 3층건물
급매1억7,000(조정가)

광주역앞(중흥동704-13,14) 6차선 대로변 상업지역
대지591㎡(평수추가가능)
2층건물 음식점, 커피카페, 전시장등 최적
급매3.3당1,200만원(조정가)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2차선도로점 일반공업지역
9,900㎡(면적추가또는 분할도가능) 급급매30억
***국내최대동굴관광지(예정)입구 투자가치도 최고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안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저(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인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대, A/S

T.375-5880